

##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안

고안나\*

### 국문요약

향토사 학습은 지역 사람들의 유·무형의 역사적 산물을 통해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게 해주는 장점을 지니지만 현행 사회 교과서와 지역화 교과서는 내용 및 서술방식에 있어 아동들의 흥미 및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토사 학습의 자료로서 신화의 가치를 주목하고 이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향토사 학습의 개념 및 필요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였고,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제주신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제주신화를 활용한 세 가지 학습유형을 제시하고 실제 수업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실행한 수업을 바탕으로 향토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주신화의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신화에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의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역사 기록으로 남지 않은 일반 민중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둘째, 제주신화는 향토의 풍습, 자연환경, 가치관 등을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학습 자료이다.

---

\* 고산초등학교 교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안을 ‘다르게 읽기’, ‘두껍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로 제시하여 수업을 실행하였다.

향토사 학습 실행 후 얻은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의 의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은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둘째, 제주신화는 현존하는 지역의 당과 관련되며 심방에 의해 구전되는 내용이므로 아동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변화하는 역사, 생동감 있는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좋은 소재였다. 셋째, 제주신화에는 중앙집권적인 교과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제주 민중의 이야기, 교과서의 서술을 부정하는 이야기 등이 담겨있어서 비판적인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을 실행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신화 선정 및 제시 방식이다. 제주신화를 향토사 학습의 소재로 선정할 경우 학습목표 및 이에 적합한 신화를 골라야한다. 또한 신화를 제시할 때에도 연극 대본 형식, 구연동화, 플래시동화, 사료형태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신화 번역 및 사료화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신화는 심방의 구연내용을 여과 없이 담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접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 방언, 비속어, 잔인한 표현들이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분량 및 내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셋째, 신화의 사료적 가치와 종교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신화는 민간신앙이 반영된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교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화의 이야기적 요소에 한정짓고 향토사 학습에 활용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제주신화는 다루기에 따라 재미있는 향토사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난해하고 심오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단점도 될 수 있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연속성에서 볼 때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라 여겨진다. 이처럼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교재의 단계형 자료 개발은 추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주제어:** 향토사 학습, 제주신화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향토사)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인문 활동을 영위해 온 흔적을 다루고 있다. 거기에는 조상들의 체취가 묻어 있는 유형·무형의 역사적 산물이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조상들의 자료는 학습자들에게 친근감과 생동감을 줄 뿐만 아니라 향토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송수진, 2008: 1-2).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행해지는 향토사 학습은 아동이 항상 접하고 있는 주변의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역사 학습 방법이다.

그러나 현행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지역화 교과서는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정 사회 교과서는 태생적으로 중앙집권적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sup>2)</sup> 따라서 교사가 국정교과서의 내용만을 강조하다

- 1) 향토사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의미 분석이 있다. 지역사, 지방사, 향토사 등의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인데 보통 지역사(local history)는 지방사의 배타성을 넘어 객관적으로 지역에 대한 역사를 바라보자는 관점, 지방사는 중앙이란 지역에 반대되는 지리적인 관점에서의 지역사 연구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요지이다. 또한 향토사를 연구자의 조상이 살아온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 태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향토사와 관련하여 주민 상호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더 나아가 중앙의 입장이 아닌 지역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앙의 입장이 아닌 지역민의 관점에서 역사를 배우자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후자의 견해에 동의하며 향토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김은석, 정광중, 류현중, 2010: 179).
- 2) 예를 들어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 보았을 때 무속을 타파한 유교가 무지한 백성을 교화한 훌륭한 정책으로 서술되었으며(사회 43쪽) 삼별초를 자주적인 정신의 상징으로 묘사하며 지방을 복속하는 것이 개혁적인 내용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사회 31쪽).

보면 아동들은 지역의 특수한 삶의 흔적, 문화적 특징들을 학습할 기회가 적어짐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적어진다. 그러한 이유로 지역화 교과서를 통해 향토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아동들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지역화 교과서 또한 진정한 향토사적 의의를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sup>3)</sup>

둘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지역화 교과서는 서술 방법에 있어서 단순 지식의 나열로 인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으며 단정적, 설명적 문체 사용으로 인해 아동이 지루함을 느끼고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자는 제주신화를 주목하고자 한다. 신화는 하나의 '신격(神格)'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로 신성성과 장엄함이 드러난다. 문자로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인 신화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세계를 '신' 또는 '신의 표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신화에는 세계관이나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전해진다(차의진, 2006: 5). 제주신화<sup>4)</sup>에는 제주 특유의 민속 문화, 고유의 정체성이 담겨져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으며, 현재까지도 도내에 300여 개의

---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발간한 지역화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향파두리 토성의 가치를 언급(『제주시 살기 좋은 우리 고장』 3학년 62쪽, 5-6학년 『미래를 여는 제주특별자치도』, 106쪽)하는 내용이 서술되었는가 하면, 테우리, 제주마 축제 등을 언급할 때 왜 테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테우리들의 삶의 애환 등을 담아내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미래를 여는 제주특별자치도』, 38쪽).

4) 제주신화는 본풀이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신(神)의 근본 내력·행적 등을 해석·설명하는 신의 내력담으로써 신화라는 용어 자체가 서양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유일신을 강조하는 서양의 신화는 한국에서 그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를 한국, 특히 제주의 용어로 바꾸어 개념을 대비해 보았을 때 신의 출생에서부터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행적, 내력을 설명하는 본풀이의 개념과 신화가 가장 근접하다고 주장하였다(현용준, 2005: 275-279). 연구자는 현용준의 주장에 동의하여 여기서는 신화를 본풀이로 가정하여 서술하였다.

당이 존재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제주신화는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여러 가지 의의를 지니는데 드러나지 않는 역사성을 담은 소재가 많으며 ‘이야기’형식을 띠므로 아동들의 흥미 및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역사 교육의 흐름에서 향토사 학습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둘째, 향토사 학습 자료의 대안으로서 제주신화가 어떤 의의를 갖는지, 어떤 유형으로 학습 할 수 있는지 방향을 탐색해보고 셋째, 실제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안을 구안·적용해보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제주신화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한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역사 교육의 흐름에서 향토사 학습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제주신화의 의의를 알아보았다. 또한 향토사 학습에 적합한 제주신화를 추려내어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교육 및 향토사 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 논문을 검토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 필요한 신화를 알아보기 위해

---

5) 제주의 민간신앙에 대해 연구한 하순애에 따르면 2001년 도내 364개의 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진성기의 『제주도무가 본풀이사전』에 채록된 본풀이만 해도 500편에 달한다며 명실공히 제주는 신들의 고향임을 입증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근시일내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제주도 민간 신앙을 파괴하려는 정치적 세력이 있었던 점이 기록된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도의 당은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 하에서 생존을 위해 종교적으로 민간신앙에 기대려는 독특한 생활문화를 반영하며 존재해왔다고 역설하였다(조성운 외 2인, 2003: 159).

제주신화 및 향토사 연구자들의 여러 문헌을 검토하였다. 필요한 경우 직접 신화의 배경인 마을의 본향당(堂)과 오름(테우리동산)을 답사하였다.

둘째, 향토사 학습에 관한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7개 초등학교 101명의 교사 및 4~6학년 218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고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모형을 구안·적용하여 학습 목표 달성 여부, 보완점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각 유형별 8차시 수업내용을 구성하여 추체험역사학습 모형, 문제해결학습 모형, 탐구학습 모형, 사료학습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아동 설문 및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실제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수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토사 수업의 의의와 유의점,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수업을 실시하였던 연구자의 수업일지 및 학생 소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 3. 선행 연구 검토

향토사 학습에 관한 선행 연구 논문들은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공감도에 비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 이유로 향토사 자료의 취약성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 들어 신화를 활용한 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논의를 띄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역사 학습, 영어 학습, 다문화 학습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제주신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향토사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향토사 자료로서 제주신화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 둘째, 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

습에 관한 교육적 논의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법 및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논의점을 바탕으로 향토사 학습이 역사 교육의 흐름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의 유형을 탐색·사례별로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 II.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의 이해

### 1. 향토사 학습의 개념 및 필요성

#### 1) 향토사 학습의 개념

향토사 학습은 향토사 교육<sup>6)</sup>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두 가지로 달라진다(박용국, 2007: 141).

첫째는 향토사 교육을 국가사의 보조적인 교재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토사 학습은 국가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국가사의 수업 도중 필요한 내용, 소재, 주제를 향토에서 찾아 쓰는 방식인데 3·1운동을 배우면서 제주 지역의 3·1 운동 실태를 언급하여 배우는 형태이다.

---

6) 여기서 학습과 교육이라는 용어 정리를 시도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보통 하나의 유기체가 자신의 행동을 지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때 학습이라고 일컬으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을 교육이라 정의한다. 보통 같은 행위를 두고 학습은 아동의 입장, 교육은 교사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관점의 차이를 뜻하기도 한다(<http://www.korean.go.kr>).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교육과 학습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서술하였다.

둘째는 향토사 교육을 향토 자체의 역사로 인식하여 독립된 역사로 교육하는 관점이며 여기서 향토사 자료는 역사가의 적극적인 창조적 사고 활동의 결과물이며 교과서가 갖는 역사적 사고력 함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 현장이나 유물, 구전물 등은 사회적 함의를 지닌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박용국, 2007: 197-198).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관점에 의해 향토사 학습을 바라본다. 즉, 역사를 바라볼 경우 중앙의 입장이 아닌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고 교과서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민중의 역사를 배우도록 하였다.

## 2)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역사 교육 사조, 아동 심리 측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최근의 역사 흐름인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인식에 따르면 역사는 역사 담론을 형성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며 역사가의 역할은 중심 텍스트를 해체하고, 계량적이지 않은 인간의 일상, 문화사를 다루는 일이다.

이러한 일상·문화사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인식의 바탕에서는 이 시대 역사의 주제는 무엇보다 잊혀지고 은폐되었으며 억압되었던 하층민의 문화, 민중문화의 발굴임을 의미하고 있다(민윤, 2006: 37-41). 이러한 추세 속에서 '향토사를 왜 가르치는가?'의 질문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중앙 중심의 역사 속에서 무시당하고 배제되었던 과거 지방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되살림은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삶과 문화의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향토사는 학습자 주변의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아동의 역사적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역사의식 발달 과정을 보았을 때 중학년 이상의 아동들에게는 체계적인 역사 교육이 가능하며 생활 주변의 현상에 대한 흥미가 커지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발전적으로 사용하는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생활사 중심의 역사 교육, 민족 통사 교육, 향토사 자료에 의한 학습이 가능하다(김중환, 1997: 18-19).

## 2.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제주신화의 의의

향토사 학습 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신화의 경우 민속무가이므로 무형적(심리적)자료이며, 1차 자료이고 구비 전승 자료라 볼 수 있다.

제주신화는 일반적인 자연사상이나 인문사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인 일반신 본풀이, 부락 수호신인 당신(堂神)들의 내력담인 당 본풀이, 한 집안 또는 씨족의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인 조상신 본풀이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신들의 내력담과 함께 제주의 인문 환경, 자연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까지도 마을제와 당굿이 벌어질 때 심방에 의해 구송되고 있다는 점에서 살아 있는 향토사 자료라 해도 손색이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주신화는 향토사 학습 자료의 의의를 가진다.

첫째, 제주신화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의식(기)을 찾아볼 수

---

7) 이와 관련하여 김기봉은 제주무속에 관하여 제주민중들이 망각으로서의 역사를 무속적인 의례를 통해 보존·유통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즉, 3백여 마을 당신과 집안 조상신의 본풀이와 비탄조의 제주 무가는 이런 역사의 폭력을 기억하는 신화 텍스트이며 제주 심방의 굿은 그 텍스트를 반복해서 연출함으로

있으며 역사책에는 다루어지지 않은 민중의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 사료이다. 이러한 사료를 활용함으로써 아동들은 역사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에 달라서 달라질 수 있는 대상이란 점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교과서 왜곡, 교과서 서술에 대한 비판적인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해 봄으로써 비판적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통정은 고내리에서는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나 성산읍에서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신다. 또한 목호의 난을 토벌한 최영장군은 제주목호의 입장에서는 외세이지만 추자도에서는 사당을 지어 신으로 모신다. 이처럼 같은 인물을 두고도 지역민의 입장에서 그를 평가하는 역사관을 달라지는데 이러한 의식은 신화에도 반영된다. 아동들은 신화와 교과서를 비교해 봄으로써 교과서에 기술된 것은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결과란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 신들 중에는 평범한 사람도 있다. 애월읍 수산리 서목당이 당신은 그 마을에 살던 김씨하르방<sup>8)</sup>이고, 조천읍 신흥리 불래낭할망당의 당신도 왜구를 피해 도망치다 목숨을 잃은 박씨할망이다. 또한 동백나무 열매를 따다가 돌아가신 조상을 신으로 모신 곳도 있다.<sup>9)</sup>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제주신화는 공식적인 역사책에 기록되지 못한 민중의 역사를 되살릴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아동들은 제주신화를 통해 크고, 정치적인 역

---

씨 폭력의 비극성을 의미화하는 담론 행위의 의례적 표현이라는 주장이다(김기봉, 2004: 65-67).

- 8) 하르방, 할망은 제주어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말이다.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제주신화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하르방, 할망이라는 용어들을 표준어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 9) 물론 우주만물을 창조한 창조신을 비롯하여 용왕신, 저승신등의 일반신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특히 제주신화에는 육지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신들이 존재한다.

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역사, 적극적으로 서술되지 않은 역사를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둘째, 제주신화는 향토의 풍습, 자연환경, 가치관등을 찾아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일례로 제주신화에서는 여성을 강조하는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여신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여신이 많다는 점은 제주 사회에서 여인들의 높은 위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이 많다. 제주도는 자연환경이 척박하여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많이 이루어지며, 밭농사와 더불어 바다에서 물질까지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주의 특성은 남성보다는 여성노동력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여성의 주체성 강화, 여성의 독립성 강조, 여아선호 사상 등이 나타나게 하였는데 이러한 가치관적 특성이 여신을 많이 등장시켰다는 것이다(김정숙, 2006: 41-45).

또한 제주신화는 자연환경에 따른 마을의 분포와도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반농반어의 마을에서는 뱀신, 농경신이 등장하고 반농반수렵의 중산간 마을은 한라산신의 계열을 모신다. 마을의 당 본풀이를 살펴보면 신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좌정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마을 설촌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도 제공해준다. 더불어 제주의 해안가를 따라 뱀신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도서 지역, 해양성 기후라는 제주의 자연환경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서 자연환경과 제주의 신화와의 관련성이 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아동들은 제주신화를 학습함으로써 향토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풍습의 유래 및 기원을 찾아봄으로써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풍습 및 가치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신화는 향토사 학습의 자료로써 효용성이 높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향토사 학습에 활용하기에

앞서 채록된 제주신화를 적절한 학습자료로 가공해야 한다. 제주신화는 그 특성상 심방이 구송한 내용을 채록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단어, 직설적이고 부적절한 어휘, 비방, 때로는 잔인한 표현 등이 들어있다. 또한 전부 다루기에는 내용이 길거나 혹은 너무 짧아 학습 분량으로 적절하지 않은 신화도 많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전에 필요한 향토사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주제에 맞게 제주신화를 수업 자료로 재구성해야 한다. 둘째, 제주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주의 신앙은 무속신앙이며 이는 사람들의 생활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근래에는 무속신앙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사가 가르치는 교실 안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아동들이 공부하고 있다. 제주신화는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고 가공한 뒤 수업의 자료로 활용하는 도구적 성격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 3.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유형

제주신화는 신들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채록된 양이 풍부하다.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주신화뿐만 아니라 한정하여 향토사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 ① 초등학교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심리적 거부감이 없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②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인문환경, 자연환경의 구체적인 개념 및 주제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③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뚜렷하여 학습자들의 상상력 및 흥미

를 유발할 소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학습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아래 <표 1>에서 제시된 제주신화는 3가지의 본풀이(일반신 본풀이, 분향당신 본풀이, 조상신 본풀이)를 대상으로 관련 탐구 내용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표 1> 향토사 학습 관련 제주신화 유형별 분류표

유형	관련 탐구 내용	관련 제주 신화
다르게 읽기	기존의 역사서와 신화를 읽고 차이점 알아내기, 역사 기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탐구하기, 역사 왜곡의 심각성 생각해보기	애월읍 고내리 분향당 당신 본풀이, 성산읍 삼달리 분향당신 본풀이, 성산읍 장수당 본풀이, 영천이 목사본 본풀이
두껍게 읽기	옛 조상들이 신화를 만들어낸 까닭 찾아보기, 제주 사람들에게 신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기, 신화를 공부하고 옛 사람들의 생활모습 상상해보기	탐라국 건국신화, 수산진안할망당본풀이, 양이목사 본풀이, 세경본풀이, 고산리 당목잇당 본풀이, 조천읍 신흥리 불래낭할망당 본풀이, 나주기민창 조상본풀이
작은 것을 통해 읽기	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 제주 풍습 탐구하기, 현재까지 풍습이 이어져 내려오는 까닭 생각해보기, 신화를 읽고 옛 사람들의 가치관 찾아보기, 칠성통의 옛 지명 유래 찾아보기, 미륵신앙이 성행한 까닭 알아보기	한림읍 수원리 영등당 본풀이, 영등신본풀이, 문진본풀이, 삼공본풀이, 제주시 회복동 운동지영감당 본풀이, 구좌읍 김녕리 서문하르방당 본풀이, 송당분향당 본풀이, 토산리 알토산 한집 본풀이, 칠성신본풀이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이론과 관련지어 설정하였는데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인식은 ‘작은 것의 역사’,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추구하며 역사를 당시 문화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방법적인 측면으로는 정해진 틀이 없지만 대략적으로 ‘다르게 읽기’, ‘두껍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등을 활용한

다. 연구자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학습 유형을 ‘다르게 읽기’, ‘두 겹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제주신화는 앞서 설명한대로 향토사 학습 자료로서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여기서는 위의 두 가지를 바탕으로 제주신화를 실제 학습을 위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 1) 유형 1: 다르게 읽기(역사 거꾸로 보기의 사료 제공)

### (1) 역사 서술 관점의 중요성

역사는 관점을 지배한 자의 서술로 완성된다. 역사 관련 유적지 조성도 이해당사자들의 알력이 상충하면 성사될 수도 있고 좌초될 수도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역사 교육의 목표가 학습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고장에서 세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이해, 역사적 견식을 길러주는 역사의식의 함양에 있다고 전제하였을 경우 교과서에 나열된 역사적 사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을 경우 적어도 중앙이 아닌 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역사교육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서술된 역사적 사실은 입장에 따라 이미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란 역사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두의 관심거리이자 당사자인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역사과목을 편제하여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국민을 사회화하는 효과적인 매체이며 역사교과서는 학문적 성격, 교육적 성격 이외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복합체이기 때문이다(김은석, 2003: 195).

그러한 의미에서 삼별초의 대몽정신을 높이 기리고, 김통정 장군의 위대성을 강조하며, 항몽유적지의 위대함을 기록한 역사책 혹은 유적지를 손쉽게 알려주는 친절한 내비게이션은 당시 제주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 거짓이다. 이를 방증하는 구술사가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당신인 황서장군 본풀이 신화로 전해져 내려온다.

(2)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황서장군 신화<sup>10)</sup>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는 항몽유적지가 존재하는 고성리에 인접한 마을이다. 이 마을 본향당 당신은 황서장군인데 본풀이의 내용을 보자면 황서장군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김통정 장군을 무찌른 위대한 인물로 마을민들을 보살피는 수호신으로 좌정하였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본풀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내리 사람들은 김통정 장군을 무찌른 황서장군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는 김통정 장군의 삼별초에 의해 마을사람들이 수난을 겪었으며 그의 퇴치를 염원하였음을 본풀이를 통해 반영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삼별초의 대몽 항쟁은 제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원이나 고려나 똑같은 외세로 인지되었음을 뜻하며 황서장군 신화를 통해 삼별초가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진성 축조의 부담을 지웠고 폐해를 끼쳤음을 추측할 수 있다.

---

10) 이와는 반대로 김통정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수로 제주민의 도움을 주는 긍정적 존재로 형상화하여 모신당이 있다. 바로 성산읍 삼달본향당과 성산장수당이다. 성산리 본향 장수당본풀이에는 김통정 장군이 성산 마을의 물혈기를 파서 샘물통을 파고 인간들이 살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중앙권력의 피해를 입어 제주로 입도하여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다. 이 또한 역사는 보는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역사 바로보기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항몽유적지와 관련이 없는 성산본풀이에서는 김통정을 샘을 제공하는 긍정적 이미지로 다루고 있다. 이는 수신적 성격으로 제주민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영웅신화적 성격을 띤다. 이 또한 역사는 관점에 따라 서술된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사례라 여겨진다.

## 2) 유형2: 두껍게 읽기(가르쳐지지 않는 역사 사료 제공)

교과서에는 역사가의 선택에 의해 사실 혹은 사건이 선별적으로 실리게 마련이다. 역사가는 필요에 의해 역사를 왜곡 또는 축소하기도 한다. 또한 가치관에 따라 주된 서술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두껍게 읽기는 이러한 지배적인 역사에 대한 확장으로 볼 수 있다.

### (1) 수산 진안할망당: 강제노역에 동원된 지역민의 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제주도는 조선시대 내내 왜구의 등쌀에 시달려야만 했다. 방어시설이 발달한 것은 그 때문인데 3성(城), 9진(鎭), 25봉수(烽燧), 38연대(煙臺)의 방어시설을 구축하여 왜구의 침입을 막았다. 수산 진성은 9개 진성 중 가장 먼저 구축된 성이다. 1439년(세종21년) 한승순 목사의 건의로 만들어졌고 임진왜란 때 이경록 목사에 의해 성산일출봉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599년(선조 32년) 성윤문 목사에 의해 현재 수산초등학교 위치로 옮겨졌다. 동쪽 성벽과 북쪽 성벽이 만나는 지점의 성벽 안쪽에는 수산진성 축성과 관련된 전설을 가진 진안할망당이 있다(이영권, 2004: 105-115). 수산 진안할망당의 당신은 수산진성을 쌓다가 제물로 바쳐진 소녀가 좌정한 당이다. 수산진성 축조 과정은 당시 민중의 입장에서는 무척 힘든 노역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역은 다양한 형태로 제주 사



람들을 괴롭혔는데 제주민들은 그로 인해 아들 낳기보다 딸 낳기를 더 원할 지경이었고 산자보다 죽은 자를 더 복된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였다(현길언, 1983: 106-108).

관에서는 수산진성을 쌓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 그 일의 완성 여부만 신경쓸 뿐 그로 인해 희생된 자는 기억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민중은 진성 축조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그의 죽음 혹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본인의 처지를 애도하여 진안할함을 당의 수호신으로 좌정시키고 본풀이를 통해 후대에 전하면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 (2) 조천읍 와흘리 본향당<sup>11)</sup> 백중제 세경본풀이 신화: 말테우리의 삶의 애환

각 마을의 당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제일이 있는데 그 중 음력 7월에 지내는 백중제(혹은 마불림제)는 와흘 본향당, 표선면 가시리<sup>12)</sup>에서 현재까지도 크게 열린다. 조천읍 와흘리, 표선면 가시리 등은 위치상 중산간 마을로 예로부터 목축이 주로 이루어지던 마을이었으

11) 민속자료 제9-3호인 와흘본향당은 와흘리 주민들의 생산(生産), 물고(物故), 호적(戶籍), 장적(帳籍)을 관장한다. 이 당은 '와흘한거리 하로산당' 또는 '노늘당' 이라고도 한다. 당신(堂神)은 '송당 소로소천국 열한 번째 아들 산신또 '로 사냥을 하는 산신(山神)이기 때문에, 당굿을 할 때 산신놀이를 한다. 처신(妻神)은 '서울 서정승 따님애기'로 제단은 동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 제일은 1월 14일(대제일), 7월 14일(백중제)이다. 당의 제일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가하는데 커다란 팽나무와 함께 진설해 놓은 제물들이 서로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이 당은 2005년에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문화재청 문화재검색: 키워드 와흘본향당,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

12) 탐라순력도 그림 중 하나인 산장구마에는 이형상 목사가 녹산장을 둘러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가시리는 예부터 목마장(牧馬場)으로 사용됐으며 방목한 말을 관리하기 위해 돌로 쌓았던 울타리인 '갓성'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겨울철 목동의 임시거처인 목감막(牧監幕) 등이 남아있는데 최근에는 목축문화박물관 예정 부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며 말과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물테우리 코시를 목축신에게 올렸는데 이 풍습은 육지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 교육의 목축문화가 만들어 놓은 제의요 축제이다(장덕지, 2007: 344-350). 그 까닭은 말이 번성하길 빌어야만 했던 물테우리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제주민 모두 각종 진상으로 인한 역의 피해를 누구나 겪었지만 특히 물테우리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웠다고 기록되어있다. 가혹한 공납과 죽은 말의 배상, 관원의 수탈로 인하여 목자들은 가난한 생활을 면할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 파산, 도망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장덕지, 2007: 13-17).

### 3) 유형 3: 작은 것을 통해 읽기(일상적 역사 사료 제공)

제주신화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진행형의 역사이다. 향토사가 지역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역사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라면 제주의 풍습을 이해하기 위해 제주의 신화, 당굿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 (1)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sup>13)</sup>: 영등신, 영등굿 풍습

제주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며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제주민들은 밭으로, 바다로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 갖은 애를 쓸 수 밖에 없었다. 해녀들은 좁녀당에서 빌고, 선주들은 돈지당, 개당에서 빌었다. 영등굿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주의 대표적인 집단 굿으로 해상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영등할망을 위한 제를 통해 한

---

13) 건입동 칠머리당의 당신은 도원수감찰지방관, 용왕해신부인이다. 하지만 칠머리당에서는 당신을 위한 굿을 할 때 영등신을 위한 제차를 지낸다. 여기서 본향당신보다는 영등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해동안 무탈하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제주가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을 소중한 풍습일 것이다.

(2) 문전 본풀이: 신구간 풍습 및 문전제 의례

육지부에서 이사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궁금해 하는 것이 제주도 특이한 이사풍습인 신구간 풍습이며 제주의 정낭, 돌 하나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는 제주인의 신앙이 현재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풍습이기도 하다(장주근, 2001: 48) 또한 문전본풀이(남선비 신화)의 내용을 따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곳(부엌, 화장실, 정낭, 현관문, 뒷문, 동서 남북중앙의 토지신등)에는 신들이 좌정해 있기 때문에 제주에 도둑이 없는 이유가 정낭신이 두려워 정낭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문전제를 올리는 풍습도 여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 III.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수업 실행

#### 1. 제주신화에 관한 인지도 조사

##### 1) 교사 인식 조사

본 연구의 목적인 제주신화의 향토사 학습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실제 초등학교 교사들이 향토사 학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10년 5월 3일~5월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주도내 7개 초등학교(제주중앙초등학교, 효돈초등학교, 남읍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동화, 한라초등학교)에 근무하

는 초등학교 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sup>14)</sup> 여기서 사회과에 대한 관심도, 향토사 학습의 중요도, 향토사 교육 실천정도, 제주신화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 경험, 제주신화에 대한 가치, 향토사 교육의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집집단의 수가 많지 않고, 미응답인 항목이 많아 전체 교사 인식으로 일반화시키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설문 내용을 보았을 때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향토사 학습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을 실천하는 빈도는 떨어지고 있었다. 이유는 교사 자신의 지식 부족,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향토사 학습 교재 제작, 동영상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를 위한 향토사 연수 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관계 기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실천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시수 부족으로 인해 교과서 분량을 가르치기에 급급하고 특히 평가와 무관한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내용까지 다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화 교과서를 향토사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지역화 교과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은 비판적인 검토를 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수업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수업의 결과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

---

14) 위의 7개 학교는 표집 대상을 골고루 섞기 위하여 제주도를 4개 구역(동, 서, 남, 북)으로 나누고, 다시 학교급을 3단계(대, 중, 소규모)로 나누어 선정하였다.(제주중앙초:북,중/효돈:남,소/남읍:서,소/한라:서,대/월랑:서,대/동화:동,대/인화:동,중)

어주게 될 소지가 있다.

## 2) 학생 인식 조사

2010년 4월 20일, 5월 3일~5월 8일까지 일주일동안 제주도내 7개 초등학교(제주중앙초등학교, 효돈초등학교, 남읍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동화, 한라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6학년 아동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sup>15)</sup> 여기서는 신화 학습에 대한 흥미도, 제주신화에 관한 인지도, 제주신화 속 인물에 관한 인식도 등을 살펴보았다. 아동 응답 역시 표집수가 많지 않아 전체 아동 인식으로 일반화시키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설문 내용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아동들은 신화 및 제주신화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신화는 전지전능한 주인공이 등장하고 개성이 뚜렷한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아동들의 흥미를 끈다. 또한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물과 줄거리는 아동들에게 흥미를 자극하고 감정이입이 되도록 도와준다.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수업은 신화라는 이야기적 요소로 인해 아동들에게 흥미를 제공해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아동들은 글을 통해 제주신화를 접하기보다는 독서 및 교육 프로그램, 각종 매체, 주변 인물(교사, 가족)등을 통해 접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들에게 있어 심방에 의한 직접적인 신화는 생소한 대상지만 가공된 형태로 제시되는 신화는 친숙한 대상임을 의미한다.

---

15) 교사 인식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아동 인식도 조사도 학교 선정에 다음의 기준으로 하였다. 제주도를 4개의 지역(동, 서, 남, 북)으로 나누고 학교급을 3단계(대, 중, 소규모)로 나누어 선정하였다.(제주중앙초:북,중/효돈:남,소/남읍:서,소/한라:서,대/월랑:서,대/동화:동,대/인화:동,중)

이를 통해 제주신화를 수업에 활용함에 있어 어떤 식으로 수업 자료를, 사료화할 것인지 교사의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2. 향토사 수업 구성

### 1) 주제별 내용 구성

이번 장에서는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을 어떤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원하는 수업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네 가지 수업 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2> 제주신화를 활용한 수업 구성의 예

유형	제제	학습 활동	학습 모형
다르게 읽기 (2010.5.6)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황서장군 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몽유적지와 고내리 본향당 알기</li> <li>○ 고내리 사람이 되어보고 느낀점 말하기</li> </ul>	추체험 역사학습
두겹게 읽기 (2010.5.11)	수산 진안할망당 (수산 진안할망당 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 진안할망당이 생긴 까닭 알아보기</li> <li>○ 역사책에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가 실리지 않는 까닭 말해보기</li> </ul>	문제 해결학습
작은 것을 통해 읽기1 (2010.5.12)	문전본풀이 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풍습의 유래 조사하기</li> <li>○ 신화와 풍습 관련 짓기</li> </ul>	조사학습
작은 것을 통해 읽기2 (2010.5.17)	영등할망 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등할망 신화 분석하기</li> <li>○ 신화와 풍습 관련 짓기</li> </ul>	사료학습

#### IV.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향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을 직접 네 번에 걸쳐 실행한 결과 아동들은 향토사 학습이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며 각각의 신화 이야기는 관련된 장소 사진과 함께 아이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제주신화는 현존하는 지역의 당과 같이 존재하고 심방에 의해 구전되는 내용이므로 아동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변화하는 역사, 생동감 있는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좋은 소재였으며 아동들은 중앙집권적인 교과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제주 민중의 이야기, 교과서의 서술을 부정하는 이야기 등을 들으며 비판적인 역사의식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다.<sup>16)</sup> 이처럼 향토사 수업의 의의가 분명히 존재하였지만 네 번에 걸친 향토사 수업을 구성하면서 연구자는 많은 문제에 부딪혔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향토사 수업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신화 선정 및 제시 방식

제주신화를 향토사 학습의 소재로 선정할 경우 교사는 먼저 ‘학습 목표’를 고민하고 또한 ‘어떤 신화를 다룰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 연구자는 앞서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유형을 제시할 때 신화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① 초등학교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심리적 거부감이 없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②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인문환경, 자연환경의 구체적

---

16) 심지어 4학년 양\* \*, 한\* \*아동처럼 교과서에, 역사서에 실리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낸 아동도 있었다.

인 개념 및 주제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③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뚜렷하여 학습자들의 상상력 및 흥미를 유발할 소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학습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향토사 학습이라는 주제에 맞춰 ‘거꾸로 읽기’, ‘두겹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3가지의 유형으로 신화를 활용하였다. 이 두 가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즉, 채록된 신화를 많이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수업에 접목시킬 것인가 고민할 수도 있고, 원하는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신화가 존재하는가 교사가 찾아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신화 자체에 대한 연구자 자체의 지식 및 이해 부족을 인식하고 전문지식을 갖추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신화를 아동들에게 제시할 때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황서장군 신화 텍스트’와 같이 연극 대본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교사가 직접 구연동화를 하며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플래시동화<sup>17)</sup>로 제작하거나 또는 ‘영등할망신화’처럼 사료형태로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신화에 관한 그림책, 아동용 도서들이 시중에 나와 있으므로 학교 도서관과 연계하여 미리 읽어오도록 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다.

## 2. 신화 번역 및 사료화 과정

수업주제에 맞춰 신화를 선택하고, 또한 제시 방식을 정한 뒤에는 ‘신화를 어떻게 사료화 할 것인가’라는 부딪치게 된다. 이는 ‘신화의

---

17) 신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예로 ‘오늘이를 들 수 있다. 2003년 제작된 2D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이성강 감독의 작품으로 제주도 ‘원천강본풀이’의 신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원전을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화를 가공할 것인지'로 귀결되는 문제이다. 보통 신화는 심방의 구연내용을 여과 없이 담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접하기에는 지역 방언, 비속어, 잔인한 표현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다. 그 이유는 신화 구연의 청취 대상이 지역민(어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신화를 아동 수준 및 학년, 발달단계, 정서, 지역(표준어를 쓰느냐 방언을 그대로 두느냐)에 따라 가공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교사는 신화 전체를 다 읽도록 하느냐, 아니면 발췌를 해서 제시하느냐 고민해야 한다. '진안할망당' 신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짧기 때문에 수업에 적용할 때 원전 전부를 아동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선비신화' 같은 일반 본풀이는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하여 아동들에게 들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신화 원전 자체의 분량도 그렇거니와 특히 시중에 나온 동화책들은 아동들의 흥미를 우선시키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과는 관련 없는 수사적인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신화도 분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사는 '전체를 다 보여줄 것인가', '일부분만 보여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선택 과정은 수업 목표와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 3. 사료적 가치와 종교 문제

제주신화를 향토사 학습에 활용할 경우 신화라는 소재의 특성상 종교적인 관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수업을 함에 있어 교사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반 아동들의 종교적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향토사 학습은 지역의 역사를 배우

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가치관, 풍습 등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지역민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종교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양식에 반영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이해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의도하지 않게 신화를 곡해하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제주신화의 사료적 가치를 수업 전에 충분히 부각시키고 관련된 내용으로만 사료로 가공해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향토사교육은 최근의 역사 교육 흐름인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교육의 대안으로 대두되는 영역이지만 기존의 사회교과서·지역화 교과서들은 거대담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서술면에 있어서 향토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며 단순 지식의 나열 및 딱딱한 문체로 인해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향토사 학습의 자료로서 교과서에 의존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향토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자가 도내 초등학교 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선 교사들은 사회과 과목의 중요성 인지 수준과는 별개로 향토사 학습의 중요성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자료 및 지식의 부족 등을 이유로 향토사 학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료의 한계, 교과서 자체의 왜곡된 서술 등에 대한 향토사 학습 자료의 대안으로 본 연구자는 제주신화의 가치에 주목하고

향토사 수업에 있어 구체적인 활용의 예를 제시하여 그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향토사 학습의 자료로서 제주신화가 지닌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신화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의식이 담겨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사료를 활용함으로써 아동들은 역사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대상이란 점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교과서 왜곡, 교과서 서술에 대한 비판적인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해 봄으로써 비판적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제주신화는 향토의 풍습, 자연환경, 가치관등을 찾아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제주신화에는 양성평등의 가치관, 마을의 설촌 역사, 제주도 기후의 특징, 신구간, 문전제 풍습의 유래 등이 담겨있다. 아동들은 제주신화를 통해 향토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풍습의 유래 및 기원을 찾아봄으로써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풍습 및 가치관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의 선례가 많지 않아 내용의 질적·양적인 면에 있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세 가지의 학습 유형(다르게 읽기, 두껍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으로 나누어 제주신화를 제시하였다. 다르게 읽기는 기존의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신화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보는 것이고, 두껍게 읽기란 간단하게 혹은 서술되지 않은 민중의 역사를 신화를 통해 부활, 확대하는 것이다. 작은 것을 통해 읽기란 제주만의 풍습, 가치관을 신화를 통해 그 유래에 대해 탐색해보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세 가지 유형별로 적합한 추체험역사학습 모형, 문제해결학습 모형, 조사학습 모형, 사료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수업을 실시하였다.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

사 학습을 네 번에 걸쳐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은 아동들이 편견 없이 신화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기승전결, 선악 대비 이야기 구조로 인해 내용적으로 흥미를 느끼게 해줌으로써 아동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키우고,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동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시사한다.

둘째,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은 신화가 지닌 역사성, 현장성으로 인해 살아있는 역사, 변화하는 역사, 생동감 있는 역사를 느끼게 해주었고 아동들은 본향당을 사진으로 보고 본향당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조상들의 역사 인식 및 가치관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셋째,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은 중앙집권적 교과서의 서술 내용에 반하는 신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비판적인 역사의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수업을 구안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에 부딪혔는데 그 해결 방향을 3가지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신화의 선정 및 신화 제시 방식이다. 신화를 수업에 활용하고자 할 때 연구자처럼 역사 학습의 유형에 어울리도록 신화를 선별하여 제시할 수도 있고 신화를 먼저 선정한 다음 필요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도 있다. 교사는 이를 고려하여 수업 지도안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신화 제시 방식도 텍스트 형태, 사료 형태, 애니메이션 형태 등 필요한 방법으로 구안하여 제시해야 한다. 둘째, 신화의 번역 및 사료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신화의 원전은 지역민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들에게 그대로 전하기에는 단어, 표현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또한 분

량에 있어서도 너무 짧은 것, 너무 긴 것이 혼재되어 있다. 교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업에 맞게끔 가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업을 위한 사료화 과정에서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신화의 사료적 가치와 종교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신화는 예로부터 제주민의 의식 및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끼쳐온 민속신앙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종교가 혼재되어 있고 민속신앙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아동들에게 신화를 제시할 때에는 종교가 아닌 문화재적, 사료적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신화에서 필요한 내용만을 추출해야 하고 수업에 앞서 아동들에게 수업의 의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상으로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안에 대해 결론 및 제언을 정리해보았다. 본 연구는 마을에 존재하는 본향당 본풀이, 일반신 본풀이를 다루는 제주신화를 향토사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초등학교 아동들의 생활 반경에서 당곳이나 본풀이는 낯설고 생소한 존재일 것이다. 또한 제주신화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의 향토사 학습과는 깊은 관련성을 지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미 지역 내에서 제주신화를 활용한 국어, 도덕 교과 분야의 선행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토사 학습의 소재로 제주신화를 주목하여 교육적 가치 및 실제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논문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차후에 많은 교사들에 의해 제주신화와 관련된 수업이 더 깊고 자세하게 이루어져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공식적인 자료의 체계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사회4·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두산동아(주).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4-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기봉, 2004,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푸른역사.
- 김은석, 2003, 『클리오와 함께하는 제주』, 도서출판 심산.
- \_\_\_\_\_, 정광중, 류현중, 2010, 『지역과 사회과 교육』,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정숙, 2006, 『자칭비·가문장아기·백주또』, 도서출판 각.
- 김종환, 1997, 「문제해결학습원리에 따른 초등학교 향토사 학습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 윤, 2006, 「포스트모던 역사인식과 초등 역사교육 다시보기」, 『사회과 교육』 45(4), 37-41.
- 박용국, 2007, 「향토사 교육의 내용과 자료 인식의 문제」, 『중등교육연구』 55, 179-206.
- 송수진, 2008, 「초등 사회과 향토사 학습의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권, 2004,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 장덕지, 2007, 『제주 마 이야기』, 제주문화.
- 장주근, 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 조성윤 외 2인, 2003,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 진성기, 1986, 「제주도의 전통문화」, 『한국민속학』 19, 419-430.
- 차의진, 2006, 「역사수업에서 비판적 읽기에 의한 설화 이해」,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길언, 1983,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탐라문화』 2, 95-125.
- 현용준, 2005, 『제주도신화』, 서문당.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문화재청,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

Abstract

## Learning Method of Local History Using the Jeju Myth

Koh, An-Na\*

Learning of local history has advantages to help children have senses of closeness and liveliness by learning history through the local people's tangible · intangible historic products and make them feel a curiosity about history. However, examining the current social studies textbooks · localized textbooks weaknesses are found out that they don't contain contents of local history as its learning materials, and that in narrative styles and methods they don't stir up children's interest and historic imagination.

Accordingly, the present study aimed to pay attention to the values of the Jeju myth as a material of learning local history and propose a direction of teaching local history for the current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rough planning and applying methods of learning local history using the Jeju myth.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concept and need of learning local history through precedent studies, and examined what meanings the Jeju myth had as a material of learning local history. In addition, in applying the Jeju myth to learning local history teaching methods were provided being divided into three types and workbooks were made by

---

\* Major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each type to apply them to practical classes. Based on the class conducted, we proposed the direction of learning local history.

The values as a material of learning local history of the Jeju myth are as follows. First, the Jeju myth reflects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e times and contains the general public's stories which are not left in official historical records. Second, the Jeju myth is an interesting learning material to find local customs and manners, natural environments, and values etc.

Accordingly, in the current study classes were conducted providing the method of learning local history using the Jeju myth in three ways including 'reading differently', 'reading thickly' and 'reading through little things'.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survey obtained after conducting local history learning and class responses, the summary of the meanings of learning local history using the Jeju myth is as follows.

First, awareness was generated that learning local history using the Jeju myth is not boring but interesting and amusing.

Second, as the Jeju myth is concerned with the existing shrine of the region and has contents handed down orally by shamans, it was a good material to make children feel living, changing and vivid history.

Third, the Jeju myth contained stories of Jeju's common people and stories to deny the narration of textbooks etc which are not addressed in centralized textbooks, a opportunity was given to inculcate critical consciousness of history.

However, if you conduct teaching local history using myths, you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it involves how to select and present the myth. If you select the Jeju myth as a material of local history learning, you should select appropriate learning objectives and myth. In addition, when you present the myth, you should various methods such as a form of the play script, orally narrated children's story, flash fairy tales, a



form of historical data etc. Second, myth translation and the process of making them into historical data should be considered. As the myth contains what was orally narrated by a shaman without any correction, improper local dialects, slangs and cruel expressions may be inserted. Thus, the work to reorganize the volume and contents must be followed. Third, the historical values of myths and religious issues should be considered. Since myths are cultural products to reflect popular beliefs, they may cause misunderstanding inevitably. Teachers should be fully aware of these aspects and apply them to local history learning limiting them to their elements of the stor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eju myth may be an interesting material of local history depending on how it is addressed or it may be a difficult and deep one. This may be a weak point, but when viewed in terms continuity to be connected to high school it is considered that it shows infinite potentials as a material of learning local history. As mentioned above, to develop materials by step in relation to local history textbooks using the Jeju myth is a task which should keep being studied in the future.

**Key Words: Learning Local History, Jeju Myth**

교신: 고안나 695-941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 1길 16 고산초등학교  
(E-mail: anna3805@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2. 6. 21.

수정완료일 2012. 8. 11.

게재확정일 2012. 8. 17.